

국민의당 혁신위 “단일지도체제 전환하자”

김태일위원장 “현 체제 의사결정 늦고 나눠먹기 문제”

윤리위원장도 직선제로... 대표 권한 집중 논란 가능성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 혁신위원회가 현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 패배 후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제보조작’ 사건으로 신뢰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 이를 헤쳐 나가려면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인 새로운 지도체제가 필요하다”며 최고위원제 폐지와 단일지도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혁신위 안에 따르면 전대를 통해 임기 2년간 당 운영을 맡는 ‘책임 당대표’를 선출하되, 기존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던 최고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당대표 중심의 상

임집행위원회가 구성된다. 상임집행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9명으로 꾸러진다.

집행기구인 당무위원회는 당대표 견제를 위한 대의기구인 ‘대표당원회의’로 전환하고, 이들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혁신위는 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을 전대를 통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분립시켜서 이 세 권력을 당원주권 원칙에 의해 선출하고, 민주성을 담보한 기초 위에 집행 권력이 소신있게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 폐지 제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체제는 좋은 의미에서는 집단지도 체제지만, 과도적 체제로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최고위원을) 나눠먹기 하는 등 나쁜 기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규모와 위기를 감안할 때 좀 더 책임있게 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집행권력을 만들어주는 체제를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대에서 2~5위에 올라 최고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은 최고위 폐지가 아쉬울 수 있지만, 출마자 몇 분 분위를 보니 단일지도체제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표의 독주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상임집행위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며 “통제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견제·균형 장치를 분명히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독립 강화, 대표당원회의에 집행권력

불신임 권한 부여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윤리위원장을 전대에서 선출하자는 것은 ‘이유미 사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이다. 제가 강력히 추진하겠다. 정당들이 윤리위 구성을 미루거나 내부 잘못을 징벌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에 대체로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보고한 안을 비대위가 채택하게 되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런 지도체제 틀 위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다”면서 “비대위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가 비대위에 이 같은 안을 제시했지만 이 안이 수용될지 또 오는 8월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당 대표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권력분산과 협치라는 최근 정치권 분위기와는 상반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靑 캐비닛 문건’ 공개 적법 공방

與 “자필 메모 대통령 기록물 아냐” vs 한국당 “독단 해석”

최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300여 종의 ‘캐비닛 문건’의 일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 정권 교체가 중중 불거지던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여야는 17일 문건 공개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건 발견 당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던 만큼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현 정부 청와대에서 임의로 공개한 것은 비밀 누설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병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가 아니고, 사본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라며 “수급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윤선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나와 ‘야당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종이에 메모를 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 비밀, 지정으로 갈린다. 그 중 일반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나 경제 상황에 위해를 가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직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판단을 지금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청와대 근무 공직자가 독단으로 해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어색’ 더불어민주당 원석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떠난 자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호타이어 매각 채권단에 맡겨야... 고용 살필 것”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 민주·국민의당 “더블스타 먹튀 우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인사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 박용진 의원, 이학영 의원, 국민의당 김광영 의원 등이 지역 경제 악영향 및 해외자본 먹튀 우려 등을 제기하며,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주문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호남) 지역 정서는 잘 알고 있다. 고용 유지 문제만큼은 금융위가 잘 살펴야겠다”면서도 “(매각 자체는) 채권단에 맡겨놔야 할 문제”라는 미온적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당 김광영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

회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이 과거 쌍용자동차 매각처럼 ‘해외자본 먹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호남) 지역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채권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고용 유지에 대해서도 “고용 유지 협약이 상당히 필요성 있게 돼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고용 유지) 2년이 지났을 때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역시 “금호타이어 매각은 쌍용자동차 매각 사례에서

봤듯이 해외자본 먹튀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지역 경제 영향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다. 원칙적으로 채권단이자 주주인 산업은행 주도로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금호타이어는 호남지역 기업이라는 특성과 고용 불안에 대해 잘 살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매각이 되면) 2년 정도 고용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더 불안하다. 그럼 2년 뒤면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물론 채권단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금융위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 주도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 부분은 금융위

에서 잘 살펴야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기업 더블스타로의 금호타이어 매각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각 반대 이유로 “더블스타는 연간 매출 5000억원 자산은 1조원도 안 되는 회사이고, 금호타이어는 매출 3조원, 자산 5조 2000억원 규모”라며 “이 새 정부가 거래를 삼키는 것이라 반드시 탈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협상태도는 일자리 창출보다 매각차익만을 노리는 것 같다”는 비판도 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공무원 증원·VR사업비...추경 신경전

野 “지난 정부때 민주당이 짚은 예산 정부가 다시 제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여야간 의견 대립이 극심했던 하반기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안 80억원이나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예산 등은 가장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예산들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진행했다.

그럼에도 일부 예산을 두고는 아권에서 “전일 정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늘려달라고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예산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문화부가 요구한 가상현실(VR)콘텐츠 육성 사업 예산 30억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

예산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요구했었는데 당시 도종환 현 문체부 장관이 교묘한 민주당 간사였던 시절에 짚지 않았나”라며 “당시 속기록을 보면 도 장관이 ‘차은택 예산’이라며 삭감한 것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썩었던 예산을 다시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소위에서 산물 진화·병해충 방제 등에 사용하는 산림헬기 3대를 교체하고 1대를 추가 구매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억39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농장 곳곳에 센서를 부착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DJ타령 그만” 정의당 대의원 징계절차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남긴 혐의를 일컫는 전 제주도당 대의원 김모씨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무위는 “당 대의원의 당원 김씨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당원들과 국민에 우려를 안긴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며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당이 14일 사과문을 게시했고, 김씨 본인도 이미 대의원직에서 사퇴했다”면서도 “당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김씨 본인도 당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당기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kh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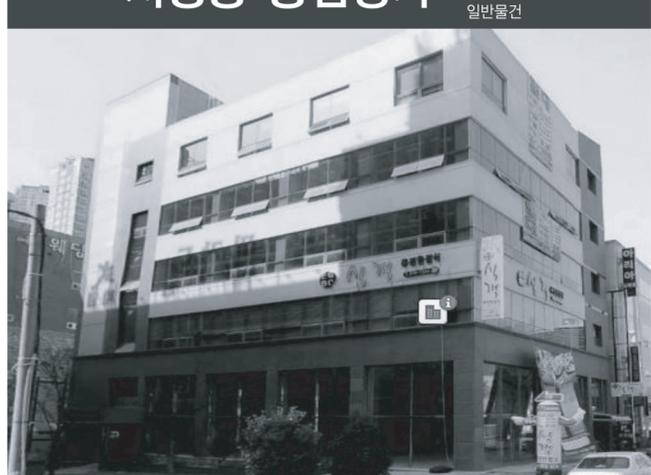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법원 경매/공매】

토지	공장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준공업지역 개발촉진지구 토지 523평 감정가 311,000,000 최저가 311,000,000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 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신안군 충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큰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감정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나주 왕곡면 송축리 계획관리지역 분노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풍암동성당인근 토지 102평 건물 223평 감정가 984,000,000 최저가 689,000,000	▶나주 다시면 월래리 원동마을내 토지 754평 건물 325평 감정가 591,000,000 최저가 414,000,000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 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111평 감정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3493평 건물 1734평 감정가 49억 최저가 14억	

일반물건

-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능
-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 ▶북구 신안동 추상복합상가 전남대정문인근 (1층, 2인)
건물 32평 **매매가 3억5천** (용자 2억5천, 보증금5천, 월143만원)
-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월 300백 시설비 8천 조정가능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